

율리카 케스테레
글.그림



생일

독후활동지 유아용



#생일 #다양성
#친구

#존중
#배려

#축하 #초대 #다양성 #우정 #친구

교과연계



누리과정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의사소통 -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책 소개

‘생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파티, 축하, 선물, 케이크처럼 신나고 활기 넘치는 단어들만 먼저 떠오릅니다. 일 년에 하루뿐인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라고 누구나 떠들썩한 축하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림책의 주인공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고정관념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은 축하의 이미지들은 점점 지워지고 그 자리를 웃음과 감동의 장면들이 채워 줍니다. 갖가지 생일날의 모습을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담은 『생일』은 축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다름과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내 친구는 과연 어떤 생일을 보내고 싶을까? 친구의 마음을 읽어 보며 친구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글·그림 울리카 케스테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울리카 케스테레Ulrika Kestere는 라트비아 출신의 스웨덴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사진작가, 그래픽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야외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림책 『떠돌이 이웃들』 『마음 약한 고슴도치』 『오토의 털 스웨터』를 쓰고 그렸습니다.





아래 표지 그림을 비교해 보고,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이해력 쓱쓱

동물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설명과 맞는 동물 친구를 찾아 연결해 보세요.

곰돌이 보보는
생일 케이크를
많이 구워서
혼자 먹어요.



호랑이 레아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관심받는 것을
좋아해요.





이해력 쓱쓱

푸들 투레는
고양이 친구들과
춤추면서 왁자지껄
생일을 축하해요.



생쥐 바나는
느긋하게 혼자
거품 목욕을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요.



너구리
베아트리에체는 파티를
싫어해서 슬렁슬렁
쓰레기통이나 뒤편에서
보내고 싶어요.





이해력 쓱쓱

조랑말 군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보내요.

올빼미 올라프는
손님들에게 엄청난
지식을 뽐내는 것을
좋아해요.

늑대는
보통의 날과 마찬가지로
그저 항해할 뿐이에요.





상상력 쑥쑥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요! 여러분은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고 싶나요?
원하는 생일의 풍경을 그려 보세요.





1. 귀여운 동물들을 오려서 돌아오는 내 생일에 케이크에 꽃을 토퍼를 만들어 보아요!
종이 뒤에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등을 테이프로 붙여서 만들면 돼요!





2. 생일에 먹고 싶은 케이크를 직접 그리고 색칠해 보세요.

아래의 예시처럼 과일과 초, 과자 등을 그려서 꾸며 봐도 좋아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